

고치현 유스하라초(梶原町)의

집락활동센터 사업

고치현 유스하라초



사업 추진 배경과 이유

유스하라초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해 마을 공동체 기능의 유지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집락활동센터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꾸준히 대화하며 지역의 과제를 파악해 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체념'에서 '다시 활기찬 지역으로 만들자'라는 의욕으로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도 주민과의 대화에 참여하여 함께 지역의 비전을 도출하며, '유대'와 '자립'이라는 키워드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추진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활동이 시작되었다.

사업 목적

집락활동센터는 2012년도에 고치현이 시작한 제도이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인재를 수용하면서, 옛 초등학교와 회관 등을 거점으로 각 지역의 과제와 수요에 맞추어 생활, 복지, 산업, 방재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이다. 정부 제도로는 내각부의 '지역 운영 조직'과 국토교통부의 '작은 거점'에 해당한다. 중산간 지역은 고령화 진행과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활동 인재 부족, 쇼핑이나 이동 수단과 같은 생활 불안, 농림수산업을 담당할 인재 부족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을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이곳에 계속 살고 싶다'라는 지역 주민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고치현은 지역 과제 해결 수단으로 '집락활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마을 공동체 유지 체계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개요

그동안 이어져 온 주민들의 연대와 노력 덕분에 '구(区)'를 기본 단위로 집락활동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집락활동센터 마쓰바라】

에너지 공급 소외 지역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 생활을 지키기 위해 폐업한 주유소 등을 인수하고자 지역 주민의 출자로 '주식회사 마쓰바라'를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또한, 지역 식자재 가공·판매 시설 '아이노사토'를 설립해 농산물과 가공품, 잡화 판매 등을 시작했다. 지역 식재료를 수익화하는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나아가 '도부로쿠(일본식 막걸리)' 제조에도 착수하여 특산품 개발에도 참여하였다.

【집락활동센터 하쓰세】

관내에서 가장 인구가 적어 마을 소멸 위기에 놓여 있었다. 다시 한번 건강하고 활력 넘

치는 지역으로 되돌리고자 예전부터 한국과 교류가 있던 강점을 살려서 '알 만한 사람이라면 아는 숨은 힐링 명소' 구상을 내세워 한국식 사우나인 '찜질방'을 갖춘 레스토랑을 조성했다. 본고장 한국의 맛을 이어받은 '다카토리김치'를 개발해 레스토랑 음식 제공과 더불어 지역 경제 순환의 핵심 장소가 되었다.

【집락활동센터 시마가와】

지역의 주유소가 폐업하면서 연료를 비롯한 생활 물자 확보가 불편해질 것이 우려되었다. 지역 주민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출자하여 '주식회사 시마가와'를 설립하고, 새로운 주유소와 함께 지역 특산품 판매소와 관광안내소, 재해 시에도 연료 공급이 가능하도록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을 갖춘 복합형 연료 공급 시설을 정비했다. 또, 홈센터 상품 중개점으로서 일용품도 판매하고 있으며, 도시락 배달 서비스, 유희 농지를 활용한 쌀농사, 펄 가공 및 판매 등 폭넓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집락활동센터 오치멘】

청년 인구 감소로 인해 전통문화와 농지를 유지할 인재 부족이 과제였다. 다시 사람, 물자,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 활력 넘치는 지역으로 되돌리고자 폐교가 된 시설을 중심으로 숙박 체류 시설로 개조하고 학생 숙박을 유지하면서 청년 교류가 생겨났다. 또한, 조리실을 활용한 특산품 가공 그룹을 통해 지역 식재료 수익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락 영농 조직을 설립하는 등 마을을 뒷받침하는 활동도 담당하고 있다.

【집락활동센터 유스하라 서부】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농가 생산 의욕이 저하되고 농지 유희화가 심화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유해 동물을 포획하여 지비에(수렵육)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사람, 물자, 자본이 순환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국 최초로 이동식 수렵육 처리 차량인 '지비에 카(Gibier Car)'를 도입하여 품질 좋은 수렵육을 사용한 특산품을 제공하고 있다.

【집락활동센터 유스하라 동부】

인구 공동화, 희박화로 연대 기능이 점점 저하되고 있는 중심부에서 지역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복지 및 생활 지원을 담당하는 지역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옛 어린이집을 지역 활동 거점 시설로 정비하고 있다.

장점과 선진성

합병 전, 당시의 촌(村)을 '구(区)'로 남겨 '구청장'을 중심으로 각각의 문화와 특성을 살린 주민 자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주민의 유대와 활동을 바탕으로 '구'를 기본 단위로 집락활동센터를 설치하였다. 자치 조직으로서의 구와 연계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별 맞춤형으로 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업 효과

○일자리 창출

각 집락활동센터의 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상근 및 비상근직을 합쳐 약 45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활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방문객과 교류하면서 보람과 자신감을 느끼며, 일상생활의 자극제가 되고 있다.

○지역 자원의 효과적 활용

지역에서 계승되어 온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 개발을 추진해 지역 외 사람들에게 지역 자원의 매력을 알림으로써, 전통 자원을 지키

는 동시에 지역 경제가 순환하여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역 돌봄 체제 확충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을 통해 대화를 겸한 돌봄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안심하고 활기찬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과제 및 문제점과 방안

집락활동센터를 관할하는 구청장을 비롯해 고용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정년을 넘은 고령자들로, 전통을 계승할 차세대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집락 지원 담당자들의 제도를 활용하면서 단순한 종사자가 아닌 차세대를 이끌 리더형 인재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전개

(기대 효과 및 사업 전망, 과제 등)

현행 사업을 유지하면서 사회 정세 변화에서 기인한 지역 과제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책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 URL

<https://www.chisou.go.jp/sousei/sbout/chiisanakyoten/index.html>

(내각부 지방창생 ‘작은 거점, 지역 운영 조직 형성’)

<https://www.eitoko.jp>

(고치현 집락활동센터 포털 사이트 ‘Eitoko Kochi(좋은 곳, 고치)’)

<https://www.zck.or.jp/site/forum/32927.html>

(전국 정촌회(町村会) 정촌 사업 추진 사례 ‘고치현 유스하라초의 집락활동센터 사업’)

담당 연락처

부서: 마을만들기산업추진과

전화번호: +81-0889-65-1250

이메일: 110-yusuhara@town.yusuhara.lg.jp



‘점질방&레스토랑 다카토리’



‘건강 모임’에 참가한 주민들



유스하라산 멧돼지 고기 가공품